

20살 청춘, 노란꽃 산수유를 노래하다

구례 산수유꽃축제 3월16~24일 산동면 일원

들담 마을농가 사이 연노랑빛 물결 한쪽 동양화
아름드리 나무서 황금왕관 모양 꽃망울들 장관
전통과 현대·자연과 사람 어우러지는 행사 다채

지리산 자락 구례 산동면은 봄이 되면 마을마다 자연관람을 이룬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물결을 이룬다.

들담으로 이어진 마을농가 사이로, 시냇가와 논밭두렁에 연노랑 빛 산수유 꽃이 피면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다.

산동면 산수유 꽃은 2월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3월 중순께 노란색으로 만개한다.

수백 년의 아름드리 산수유 나무에서 황금왕관 모양의 꽃망울들이 한꺼번에 피어올라 마치 꽃대미가 마을을 뒤덮는 장관을 연출한다.

꽃들은 특히 가을이 되면 루비같이 빨간 산수유 열매로 변해 또 다른 볼거리는 물론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 준다.

구례 산동면 일대 40여개의 자연마을에는 이처럼 산수유나무가 없는 곳이 없다.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근력지이다.

주로 한약재나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산수유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구례 산동면 농가의 큰 소득원이다.

지난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산수유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구례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산수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1천년 전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사는 처녀가 구례군 산동면으로 시집 올 때 처음 가져와 심었고, 산동이라는 지명도 이러한 연유에서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산수유 시목 나무가 구례군 산동면 계척마을에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 '산수유꽃 축제' 3월16일 개막
봄의 전령사로 표현되는 산수유 꽃은 봄맞이 상춘객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꽃으로 알려져 있다.

구례군 산동면 일원에서는 매년 산수유 꽃이 만개하는 3월 중순께 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3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린다.

1999년 산동면청년회와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산수유꽃 축제는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구례군의 대표축제다.

◆ 봄의 활력과 젊음을 노래
구례군은 올해로 20회를 맞는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기념해 개막행사를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

'스무살청춘, 산수유를 노래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수유나무의 전래에서부터 산동면 지역의 여순사건으로 인한 비극을 노래로 전해오는 '산동애가(哀歌)' 음악공연, 지난 산수유꽃축제의 이모저모 영상 공개, 봄의 활력과 젊음을 노래하는 인기가수 공연 등을 테마별로 구성해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의례 의식은 간소화하고 군민의 축하멘트 영상 모음 위주로 진행된다.

◆ 체험·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
축제프로그램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첫날 오전 11시 구례향교 유림회는 산동면 계척마을 산수유나무 시목지에서 축제의 서막을 알



리는 풍년 기원제례를 거행한다.

주요 행사는 산동면 좌사리 지리산온천관광지 특설무대와 산수유사랑공원, 반곡마을에서 열린다.

'산수유꽃길따라 봄마중 걷기', '영원불변의 하트지 남기기' 체험 등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에 따라 40여종의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산수유떡 만들기 체험 경연행사'가 축제장에서 규모 있게 열린다.

자녀가 있는 가족은 전통 방식의 떡메치기와 떡설기 체험 및 경연 행사에 참여하면 맛있는 찰떡과 먹고 재미도 즐길 수 있다.

공연행사도 풍성하다. 행사기간 중 주말

에 산수유문화관과 반곡마을에서 가야금, 판소리, 통기타 등 '작은음악회'가 열리고, 트로트 가요제 '산수유 사랑 콘서트', '포크 콘서트', '남도전통 출가락의 맛과 소리' 공연이 이어진다.

또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지역문화공연',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구례잔수농악을 비롯해 강릉, 평택, 진주 삼천포, 임실 필봉 농악 등 우리나라 대표 무형문화재 농악공연도 선보인다.

평일에는 DJ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락가락'과 '산수유 열린 무대'도 마련된다.

향토음식 및 지역제품 전시판매 등 부대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산수유차 등 산수유 제품을 비롯해 농특산물 판매장, 산수유캐

릭터 퍼포먼스, 즉석 사진인화 서비스 등을 행사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 교통체계 등 관광객 편의 개선
구례군은 산수유꽃축제 기간동안 올해에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객은 주말에 집중돼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교통 체증이 골치거리였다. 이 때문에 올해는 진입하는 일방통행 노선을 확대 개편하고 진출 우회도로는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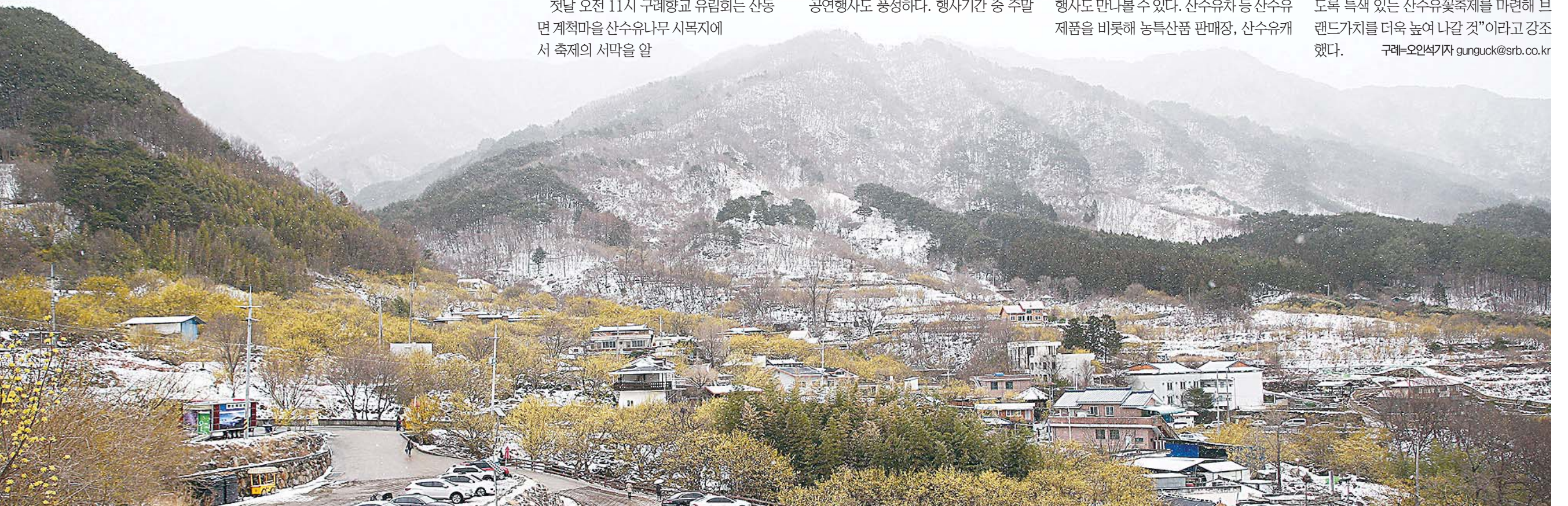
또, 주 행사장은 관람객들의 동선을 따라 집중 배치해 각종 버스 이용이나 체험참여, 무대공연 관람을 한 공간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구례군 홈페이지에서 산수유꽃 현지 개화 상황을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리산정원이나 화엄사, 사성암, 한국암박물관 등 관내 유명 관광지를 다녀온 후 산수유꽃축제를 방문하거나 축제장 내 '산수유 캐리터'와 인증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홍보하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산수유 견피를 무료로 주는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산수유는 오래 전부터 지역농가의 소득원이고 소중한 관광 자원이었다"며 "산수유가 우리 군의 6차 산업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산수유꽃축제를 마련해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구례군은 오는 3월 16일부터 9일동안 노란꽃 산수유 축제를 연다. 산수유축제에는 해마다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노란 산수유꽃에 내린 하얀 눈.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테트/석면철거 정부허가 업체입니다.
민중과 상심함을 기업이념으로 깔끔한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 스테트 석면 철거 전문
-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 침수리 및 미니프레이인(암쇄기 보유)
- ▲ 인력 상담환경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http://unisolar21.com

태양광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월 연금식 소득 발생

- 발전소 부지 매수 · 매도
- 발전소 자금 대출 가능
- 건축물 가중치 1.5 적용

- ▶ 니주 다시 송촌: 100KW 30구좌 분양 사업주 모집
- ▶ 해남 송산: 400KW 개발행위 완료
- ▶ 고흥 도화역중: 1MG 2구좌
- ▶ 고흥 계당: 1MG 1구좌 / 500KW 1구좌

개발행위 완료, 선로 연내 개통

☎ 010-9340-5519
☎ 062)672-5519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http://shan.lgplusappstore.co.kr

신세계백화점 협력업체 새한익스프레스

보증보험가입업체 관허 25호

포장이사·일반이사·보관이사

-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방문 견적 상담해 드립니다.
- 에어컨, 비데, 정수기 등 무료 분리 서비스
- 커튼, 맥자, 버티컬, 블라인드 등 무료 탈부착
- 각종 가구 먼지 제거 등 확실한 마무리 정리정돈

대표전화 269-2222
무로전화 080-269-5000

동구 261-8600 서구 364-8600 남구 653-5524
북구 511-8600 완산 941-8524 문인 269-5544

찾병/스트레스 질환 경희한의의원

불면증 · 우울증
찾병 · 공황장애

062) 365-1541
화정동 추신회관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000620-증-307호

상품권을 드립니다!

카카오에서 [사랑방편지] 검색하고 친구를 맺어주세요. 1:1 대화로 사진, 상행사를 올려주세요.

매주 총 3분께!!
2만원 상품권

[GS칼텍스 & 홈플러스 기프트카드]

사랑방

자세한 사항은 사랑방신문 '공감특목' 지면을 참조하세요.